

사회

학생부 고친 교사 '숨방망이' 처벌

광주교육청 1357건 적발 ... 전국 3위 불명예

징계대상 51명 중 고작 10명만 경징계 처분

지난해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고3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친 사례가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아 지역 공교육의 신뢰가 크게 실렸지만 대부분 교사들이 법적 징계를 받지 않고 행정처분(주의·경고)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

청별 고3 학생의 학생부 부당 수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학생부 부당 수정으로 전국 299개교에서 9067건이 적발됐다.

광주지역에서는 39개교에서 1357건이 시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광주의 경우 부당 수정 건수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경기(2162건), 대구(1369건) 다음으로, 부당 수정 학교 수는 인천(51개교) 다음으로 가장 많

았다. 부당 수정 건수가 100건 이상인 학교도 3곳이나 됐다.

부당 수정의 유형별로는 ▲진로지도가 570건으로 가장 많고 ▲독서활동 360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48건 ▲특별활동 97건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67건 ▲봉사활동 12건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증거자료 없이 무단으로 학생부를 고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징계대상으로 분류된 교장·교감·교사 51명 가운데 10명이 경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경고(6명)와 주의(35명) 등 행정처분 그쳤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의

부당 수정 사례가 많은 것은 타·시도와 달리 전수조사를 한 결과"라며 "경징계 이상 징계를 받은 교원도 10명으로 타·시·도에 비해 적은 인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28개교에서 255건이 적발됐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은 전무했고 관련자 56명 전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민병주 의원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자료인 학생부 부당 수정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교육청은 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음란공연 나이트클럽

과징금 부과는 정당”

전주지법 판결

음란한 공연을 한 나이트 클럽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종춘)는 11일 음란공연으로 52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주모 나이트클럽 사장 이모씨 등이 구청을 상대로 낸 '유혹주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때문에 일게 된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식품접객업 영업과 관련한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미풍양속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독서 골든벨 “정답입니다”

광주시 북구 운암3동 자치위원회가 11일 경양초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한 '도전! 가족 독서 골든벨' 행사 참가자들이 정답을 맞힌 뒤 기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단횡단 단속이 최선?

광주경찰 9월만 3000건 ... 8월까지의 3배

시민들 “실적보다 지도·제도 우선” 불만

광주경찰이 최근 한 달 동안 무단 횡단 등 보행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3000건 이상 단속해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보행자 단속건수의 3배에 가까운 수치로, '무더기 단속'보다는 지도·제도 활동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한 달간 '주요교

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해 모두 3383건의 보행자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범칙금(2만~3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광주경찰의 보행자 단속 건수(1236건)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올 들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 단속은 2만7444건이었고, 집중 단속 기간에는 7954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기간 교통경찰과 지구대 인력을 동원해 금남로 등 주요 위반

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경찰이 정차 사고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단속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을 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단속보다는 지도나 제도 활동 위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집중 단속 기간 투입한 인력을 동원해 계도에 나서면 단속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단속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 상반기 집

중 단속기간에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진행됐다.

한 시민은 "숨어서 기다렸다가 단속을 한다는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며 "좀 더 세심한 단속을 부탁한다"고 광주경찰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면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긴급체포 여수시 공무원 알고보니... 수십억 공금횡령 들통 부인과 동반자살 기도

수년간 수십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부인과 동반자살을 기도했던 여수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특히 여수시는 이 공무원이 수년간 수십억원의 공금을 횡령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해 자치단체의 재정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1일 여수시와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 따르면 최근 승용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부인과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구조된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7·기능직 8급)씨를 순천지청이 10일 오후 공금횡령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씨의 횡령 사실은 최근 감사원 감사 진행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감사관은 자해 등을 우려해 김씨의 긴급체포를 의뢰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3년2개월 동안 여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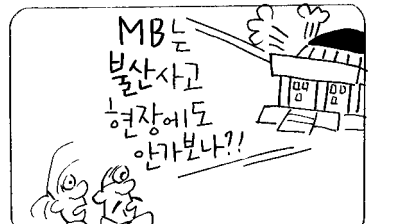
회계과에서 시청 전 직원 급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관리 업무를 전담해왔다. 그는 매달 20일 급여일에 맞춰 전체 직원들 급여 중 근로세 원천징수분을 미리 공제, 자신이 관리하는 여수시세입 세출의 현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달 10일까지 이 돈을 국세청 계좌로 이체했다.

여수시는 김씨가 근로세를 국세청 계좌로 이체하면서 일부만 이체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비밀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역수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앞서 지난 8일 오후 11시20분께 여수시 화양면의 한 도로 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부인과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차량 안에는 연탄불이 피워져 있고, 수면제 5알이 발견됐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나원침 (8666) 김장두



진보연대 간부 집 압수수색

경찰이 11일 오전 광주·전남 진보연대 간부의 가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께 보안수사대 소속 직원을 진보연대 김모(40) 사무처장의 집에 보내 6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김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보관중인 책자, 차량 등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과수는 급발진 아니라는데...

남구 대형마트 車돌진 사고

경찰, 운전자 불러 경위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달 광주 남구 한 대형마트 3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본보 9월13일자 6면)는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난달 11일 밤 10시21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대형마트 3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장조사와 액티언 차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결과 차량 결함에 의한 교통사고(급발진 등)를 야기할 만한 특이한 사항은 식별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사고로 운전자 A(55)씨는 경상을 입고, 보조석에 타고 있던 A씨의 부인(52)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부인은 이날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려는 데, 차가 갑자기 급발진을 일으키며 30m 앞 벽으로 돌진했다"고 말했다.

사고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A씨가 "급발진 같다"라고 외치는 소리와 함께 시속 60km의 속도로 벽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서 50대 분신 시도

11일 오후 4시4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A(51)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고, 곧바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돈 없어 회한다” 365코너에 불질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방화 전과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돈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은행 365 코너 현금지급기에 불을 지르려다가 구속.

○...11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방화미수 등 전과 16범인 백모(36)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은행 365 코너에서 현금지급기 위에 놓인 현금봉투에 불을 붙여 쓰레기통에 넣었으나 급세 꺼져다는 것.

○...동종전과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지난 4월 출소한 백씨는 경찰에서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돈이 없는 내 상황이 안타까워, 화감에 불을 지르려했다"고 진술.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특수가발 발매!!!**

50만원~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옌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가발

총장로 1가입구 탐앤탐스 8층

6 두기비어 하우스
barbecue restaurant

즉석바베큐 & 다양한샐러드바

환영합니다
웨이팅이 없는 즉석 바베큐와 다양한 샐러드들 부담없는 가격으로 마음껏 즐길수 있으며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을 나눌수 있는 공간입니다.

- 평일 점심 ₩12,900
- 평일 저녁 ₩14,900
- 주말, 공휴일 ₩15,900
- 미취학아동 ₩6,000
- 초등학생 ₩9,900
- 영업시간 : AM 11:30 ~ PM 10:00시

예약문의 226-0003

주차인내: • 승용차 이용시-건물 지하주차장 이용(인산 1주차장)
• 승합차 이용시-인산 2주차장 이용(인산 1주차장에서 30m에 떨어져 있음)